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선택의 자유

성경: 시편 33장 12-22절

Tag:

12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어

14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

15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살피시는 이로다

16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17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18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20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1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어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22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33:12-22)

주어진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주어졌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

주어진 것은 어쩌면 절대적인 것이다. 그만큼 불변하는 가치요, 중요한 가치를 의미한다. 내 부모의 가치가 그렇고, 내 자식의 가치가

그렇다.

그러나 인생에서 주어진 것 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 선택은 곧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는 곧 개인의 존재가치를 담고 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존재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최대한 그 자유가 보장되도록 도와시는 분이신다.

다만, 이 선택의 자유에는 위험도 따른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왜냐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선택하는 순간 그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박? 인생이 도박은 아니겠지만)

만약 내가 정확히 알았더라면, 다른 것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뒤늦게 잘못된 선택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재능낭비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 가능하다.

주어졌든, 선택했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안전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한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을 선택하시면서 스스로 우리에게 결박당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나의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귀중하지만, 그것은 선택권으로서의 가치를 의미할 뿐 잘못된 선택까지 귀중하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앎되었구나는 깨달음만 건질 뿐이다.

그런데 나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상황은 크게 바뀐다.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
여

14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느
다

15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살피
시는 이로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맞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타종교인도 보살피신다.(안타깝게도 그들이 엉뚱한 것에 감사할 뿐. 하나님은 보살핌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다만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는 자들은 악을 일삼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모든 선량한 사람들을 보살피신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지와 죄악과 구조적인 악과 마귀의 속임수 또한 지긋지긋할 정도다. 그냥 방치하면 세상은 곧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 그의 간계를 이기는 것은 믿음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시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각종 좋은 것들이 열매맺게 하신다.

특별히 경건한 성도들을 더욱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더 친밀하게 보살피 주신다.

18 여호와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는 그것을 은총이라 한다. 은혜는 보통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고, 은총은 특별한 사랑을 말한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베푸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은총이 성도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사실 성도의 목적은 은혜뿐만 아니라 은총에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성도들도 선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곤경에 빠진다. 그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겐 남다른 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가 있다. (아빠찬스, 엄마찬스)

물론 하나님 아버지 찬스가 리셋버튼은 아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은 아니라는 뜻. (인생은 게임이 아니다.) 잘못된 선택을 최대한 되돌릴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은총을 사모하자!~

[겨자씨] 기도의 기적

입력 : 2013-12-30 01:34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 가난한 콩나물 장수가 있었다. 그 여인은

새벽마다 무거운 콩나물 통을 이고 교회로 향했다. 여인은 시장에 가기 전 교회에 들러 새벽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는 지극히 소박한 내용이였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인의 새벽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자녀는 제약회사를 설립해 크게 성장시켰다. 그 자녀는 어머니의 새벽기도와 교회 종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사업 성공이 어머니의 새벽기도 덕분임을 확실히 믿었다. 그는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으려고 회사의 심벌을 ‘종’으로 정했다. 이 회사가 바로 믿음과 신뢰의 기업 종근당이다.

어느 문구류 회사에서 신상품 개발을 총괄하던 송삼석 회장은 신형 볼펜을 제작해놓고 명칭을 정하지 못해 고민에 잠겼다. 상품의 브랜드는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기도한 후 성경을 펼쳐들었다. 그의 눈앞에 요한복음 21장 11절이 나타났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어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내용이였다. 송 회장은 무릎을 쳤다. 그리고 볼펜 명칭에 베드로의 물고기 숫자를 넣어 ‘모나미 153’이라고 붙였다. 이 볼펜은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되어 회사를 성장시켰다.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긴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환히 열어준다.

오범열 목사(안양 성산교회)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890260>

[출처:크리스천비전]<http://www.christianvision.net/6523>

새벽기도를 통해 부도 위기의 회사를 살리고 CEO가 된 심재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심 집사님(2016년 장로취임)은 현재 청호컴넷 금융사업부문의 총괄사장이며 서울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프로그래머였던 집사님은 ‘현금자동지급기’ 제작 사업에 투신하여 30대 초반에 임원이 될 정도로 큰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불어 닥친 IMF 한파는 집사님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에 빠져 직원들은 아우성을 쳤고, 집사님의 집은 경매 처분을 당하게 되어 온 가족이 길에 나앉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집사님은 무당집을 기웃거렸고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의 권고로 ‘100일 작정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새벽기도라고는 등 떠밀려 2번 나간 것이 고작이었지만 이때만큼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점점 집사님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 났습니다.

집사님은 새벽기도를 통해 얻은 믿음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설득해 함께 마음을 모아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반기업인 일본(후지쓰 프론텍)에서 부도를 정리하고 새 기업을 세워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위기 극복의 공로라며 본사가 그에게 CEO직을 맡

아달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집사님은 솔로몬처럼 경영의 지혜를 구하며 새벽기도 일천번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새벽기도는 지금까지 이어져 15년간 5,000일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에서 들은 말씀과 새벽마다 부르짖은 기도 제목을 적은 노트는 50여 권이 넘었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2006년 한국은행에서 새 지폐 발행.

ATM 교체, 개조. 대박. 모든 작자 해소.

2008 외환위기. 5만원권 발행해서 대박.

"사람들은 '오랜 기간 외국기업의 CEO로 근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탁월한 성과'나 '경영 능력'이라는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믿음'이라고 대답합니다.

선택을 잘 하는 성도가 되자. 그만큼 시간을 절약하고, 힘이 덜 든다.

편리함 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선택하라.

건강을 선택하라

지혜를 선택하라

회복을 선택하라

선을 선택하라

희생을 선택하라

사랑을 선택하라

용서를 선택하라

천국을 선택하라

축복을 선택하라

(김은숙 간증)

18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20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1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22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33:12-22)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자유과 결박

성경: 이사야 58장 6-14절

Tag: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9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3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

이니라 (사58:6-14)

-금식의 영적인 의미;자유를 회복하라. 다시는 종의 멍애를 매지 말라.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

-reset. 일상의 회복. 잠시 멈추어서 점검하라. 삶을 정리하라. 계속 가다가는 파국이니 일단 스톱.

가톨릭에서는 피정이라 함.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한가롭게 자신을 뒤돌아 보는 것.

-금식하면 남는 시간이 많아짐.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이 인생의 2/3.

-먹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유익. 고단백, 자연야채식 위주로 삶의 질을 높일 것. 여러 가지 천연향신료로 몸을 안정시키라.

-잘못된 식습관은 인공향미료에서 시작됨. (패스트푸드는 꼭 바쁠때만. 인공향미료에 중독되지 말라.)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라.

-당신의 취향은 오염되었거나 심지어 중독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의식주 또한 그렇다. 나는 무슨 음식, 무슨 행동, 무슨 곡에 대한 취향이 있다는 것은 그쪽으로 비뚤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함.

-비뚤어진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먹어야 함. 일단 음식을 금하고 모든 독을 제거한 후 내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의 음성을 들어야 함.

-나의 결박을 푸는 것.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볼모로 잡은 모든 것을 풀어주어라.

-탕감해 주어라. 7년동안 고생했으면 되었다.

홍약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애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애를 쥐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의 즐거움 보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함. (금식의 핵심)

- 나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원함.
- 나는 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존재함.
- 사랑 받을 때 보다 사랑할 때 더 힘이 나고, 기쁘고, 행복함.

-사랑에 배신이 없게 하라. (내가 배신 당하지 않음이 진정한 사랑)
 -내가 사랑을 주어도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수 있음. 얼마든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님. 서로 주고 받는 것이 복이지만,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큰 복임.

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 네 빛이 새벽 같이;회복. 어둠이 견히리라.
- 네 치유가 급속하리라;빨리 나오리라.
-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나의 정당성이 드러나고,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리라.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리라. 네 말이 옳았다.
-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하나님의 나를 지켜 주시고, 모든 위협에서 나를 보호하시리라.

9상.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
- 부르짖을 때, 화급할 때, 빨리 응답하시며 나를 진정시키심.

9하.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멩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 멍에를 잘라버리라
- 손가락질을 잘라버리라
- 허망한 말을 잘라버리라. 그러면,

10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
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
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스스로가 곧 샘이 되리라.